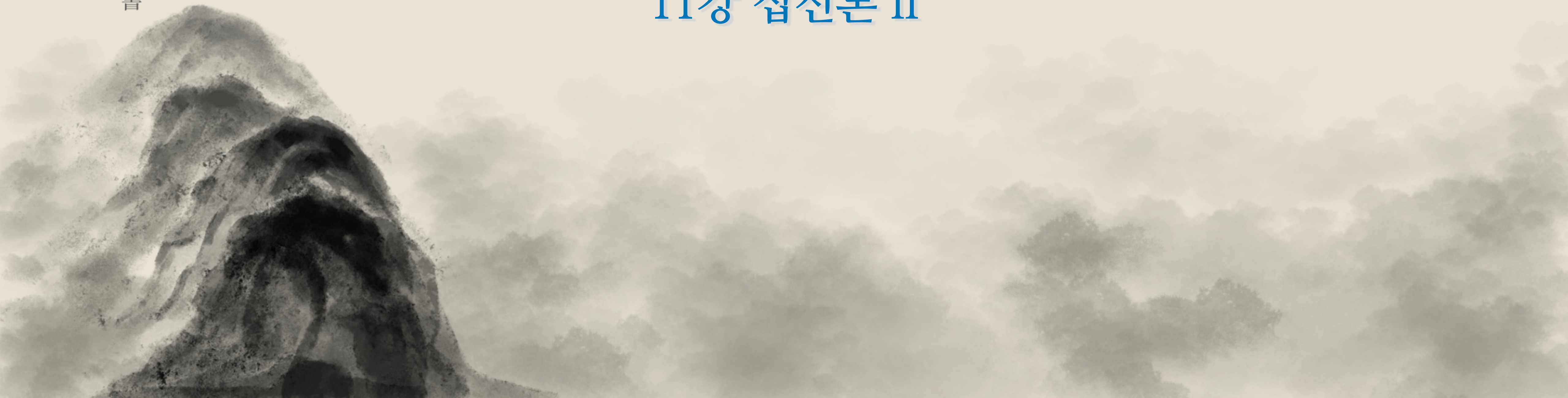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11강 십신론 II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정관 〈淵海子平〉 正官論 및 論官星太過

正官乃貴氣之物 大忌刑沖破害 及於年月時干 皆有官星隱露 恐福渺矣
又須看年時上別有是何入格 作福去處 方可斷其吉凶

정관은 귀한 기운을 가진 물상이므로 형충파해를 매우 꺼리는데
년월시 천간과 숨어 나타나지 않은 모든 관성까지 복이 적을까 두렵다.
또 모름지기 년간(年干)과 시간(時干)에 어떻게 격이 흘러가는지,
복이 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봐야 비로소 그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正官或多 反不爲福 何以言之 蓋人之命 宜得中和之氣
太過與不及同 中和之氣爲福厚 偏黨之剋爲災殃

정관이 많으면 오히려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체로 사람의 명은 마땅히 중화의 기를 얻어야 한다.
같은 기운이 많거나 적은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중화를 이룬 기운은
복이 두텁지만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극을 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11강 십신론 II

既用提綱作正官 年時支干位 或有一偏官便雜矣 不可不仔細以輕重推測也
又曰 於月令得之是也 喜身旺印綬 如甲用辛官 喜土生官 最怕刑沖破害 陽刃七殺
爲貧命 如時干逢殺 乃官殺混雜 蓋四柱有刑沖破害 皆未爲貴命看 官來剋我
我去剋官不爲害 一位兩官不妨

이미 월지(제강)으로 정관을 쓰고 있는데, 혹여 년, 시 천간 지지에 편관이 하나 있으면 혼잡스러운데
어쩔 도리없이 마땅히 자세하게 경중을 따져 추측해 보아야 한다.

또 말하기를 월령에 정관을 얻으면 신왕한 것과 인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갑목의 신금이 정관인데 토로 관을 생함을 반기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충파해이다.

양인 칠살은 가난한 명(命)인데 예를 들어 시(時) 천간에 편관(殺)이 있다면 관살혼잡이다.

대개 사주에 형충파해가 있다면 모두 귀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관은 나를 극하는 것인데 일간이 관성을 이겨내는 것은 해가 되지 않고 한 자리에 정관이 두 개 있어도 거리낌이 없다.

11강 십신론 II

若月令中有正官 時干支有偏官 便難以正官言之 且如甲用辛爲官
生於八月中氣之後 金旺在酉 故謂之正官 如天干不透出辛字

卻地支有巳酉丑 雖不能於八月中氣之後 亦可言官 大要身旺 時辰歸於甲木旺處

그러나 월령에 정관이 있는데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 정관(격)이라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목은 신금을 정관으로 삼는데

8월 중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금기가 왕성한 유금이기 때문에 정관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천간에 신금을 투출하지 않았지만 지지에 사유축 삼합이 있는 경우

비록 8월 중기 이후에 태어나지 않아도 또한 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왕 해야 하고, 시지 진토가 갑목을 왕하게 하는 자리에 따라야 한다.

若無傷官破印 身不弱者便爲貴命 如命中有官星 而行傷官之運則不吉
必待印綬 官星旺運可發 必得官 必待印綬官星旺運可發必得官
大凡官星多則雜 務要除而清之 乃可發福 若官星多又行官運 亦不濟事

만약 상관이나 인수를 깨뜨리는 것이 없고, 일간(신 身)이 약하지 않으면 귀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중에 관성이 있는데 상관운으로 흐르면 불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를 기다려야 하고 정관이 왕한 운에는 반드시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대체로 관성이 많으면 잡스러운데 반드시 억제하여 맑게 하면 발복한다.
만약 관성이 많은데 행운까지 관성운으로 흘러가면 역시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三命通會〉 卷五 論正官

正官者乃甲見辛 乙見庚之例 陰陽配合相制有用成其道也 故正官爲六格之首
止許一位多則不宜 正官先看月令 然後方看其餘 以五行之氣惟月令當時爲最
況四柱各管年限 年管十五失之太早 時管五十後失之太遲 故只此月令爲正餘格例此

정관이란 또한 갑이 신(辛)을 보고, 을이 경을 보는 경우이다.

음양이 조화되어 서로 작용함이 쓸모가 있어 도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관은 육격(六格) 중에서 첫째이고, 한 자리만을 허용함에 그치고 많은 즉 마땅하지 않다.

정관은 먼저 월령을 살피고, 그런 연후에 그 나머지를 살펴라.

생각컨대 오행의 기는 월령으로 함이 가장 마땅하며 게다가 사주의 각각은 년한(年限)을 관장하는데

정관이 년(年)의 기둥에 있으면 15년으로 아주 빠르게 어긋나고

시(時)의 기둥에 있다면 오십(五十) 후엔 크게 지체하여 잃어버린다.

고로 단지 월령(月令)에 정관이 있어야만 되며 나머지 격의 경우도 이와 같다.

11강 십신론 II

甲日生酉月 乙生申巳 丙生子 丁生亥 戊生卯 己生寅 庚生午 辛生寅巳
壬生午未丑 癸生辰巳戌月 皆爲正氣官星 更天干透出如甲見辛酉
乙見庚申之例 謂之支藏干透 餘位不宜再見 又須日主健旺
得財印兩扶 柱中不見傷煞行運引至官鄉大富大貴命也

갑일생(甲日生)은 유월(酉月)에, 을일생(乙日生)은 신월(申月)과 사월(巳月), 병일생(丙日生)은 자월(子月), 정일생(丁日生)은 해월(亥月), 무일생(戊日生)은 묘월(卯月), 기일생(己日生)은 인월(寅月), 경일생(庚日生)은 오월(午月), 신일생(辛日生)은 인월(寅月)과 사월(巳月), 임일생(壬日生)은 오월(午月)과 미월(未月), 축월(丑月), 계일생(癸日生)은 진월(辰月), 사월(巳月), 술월(戌月)인데 모두 정기관성(正氣官星)으로 삼는다.
다시 천간(天干)에 투출(透出)하여야 하는데 가령 갑일(甲日)이 신유(辛酉)를 보고, 을일(乙日)이 경신(庚申)을 보는 경우, 지장간에서 투출된 것을 일컬으며 나머지 위치는 다시 보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한다. 또 반드시 일주는 건왕해야 하고, 재성과 인수의 부조를 얻어야 하며, 주중에 상관과 칠살을 보지 말아야 하며, 행운이 정관운으로 끌어 이르면 대부대귀한 명이다.

大忌刑衝破害 傷官七煞貪合忘官劫財分福爲破格
如甲生酉月見卯爲沖 酉爲刑午爲破戌爲害 丙爲合乙爲劫
丁爲傷剋庚爲混雜 須是官星純一 五行和粹方以正官論

가장 꺼리는 것은 형충파해(刑沖破害)와 상관칠살(傷官七煞),

탐합망관(貪合忘官)과 겁재분복(劫財分福)이며 파격(破格)이 된다.

가령 갑목 유월생이 묘(卯)를 보면 상충(相沖)하고, 유(酉)를 보면 형(刑)이 되며,
오(午)를 보면 파(破)가 되고, 술(戌)을 보면 해(害)가 되며, 병(丙)을 보면 합(合)이 되고,

을(乙)을 보면 겁재(劫財)가 되며, 정(丁)을 보면 상관(傷官)의 극(剋)을 보고,

경(庚)을 보면 혼잡하니 반드시 정관은 순일해야만 바르고, 오행은 순수로 화(和)해야 정관을 논하는 도리가 된다.

若見前忌柱中雖有物去之亦不純粹若官星結局 又有財資扶非行身旺地不發
官止一二無財有印身弱無妨 若四柱皆歸背祿宜推歲運向背財官旺地何如
若財官滿日日主衰弱不能負荷徒勞無用 運至財煞旺鄉多染癆瘵
但有七煞行運復遇便是徒流之命

만약 사주 중에 꺼리는 것을 미리 본다면 비록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있더라도 역시 순수하지 못하며,
만약 관성이 국을 이루고 또 도와주는 바탕인 재성이 있다하더라도 행운이 신왕지로 가지 않으면 발하지 못한다.

관이 하나 둘에 그치고 재가 없고 인이 있으면 신약이라도 무방하다.

만약 사주가 귀록이나 배록이라면 마땅히 세운에서 쫓고 등지는 것을 헤아려야 하고, 재관이 왕한 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재성과 관성이 눈에 가득차고 일주가 약하면 그 무거운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헛되이 수고함도 쓸모가 없고, 운이 재성과 관살이 왕한 곳에 이르러 많이 물들게 되면 말기 폐결핵을 앓게 된다.

단 칠살이 있어 행운에서 거듭 만나면 곧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명이 되는 것이다.

又曰甲生丑月內有辛金又值酉時已是重犯

若天干復透辛多更行西方力不勝任變官爲鬼 旺處必傾多致災天須有合制方吉
若自身乘旺如甲寅乙卯等日更有印生助官星雖多亦不爲害

또 말하기를, 갑목 축월생이 지장간에 신금(辛金)이 있는데 다시 유시(酉時)를 만나면
이는 무릇 거듭 범하는 것이며 만약 천간에 신금이 투출하여 많고 계속해서 운이 서방으로 행하면
맡은 일을 감당할 힘이 없고, 관성(官星)이 관귀(官鬼)로 변하게 된다.

왕한 곳에서는 필시 기울어지니 재앙과 요절이다. 마땅히 합거(合去)하거나 극제(剋制)하는 방향이 길하다.
만약 자신이 승왕하면, 가령 갑인, 을묘 등과 같은 일주에 다시 생조하는 인성이 있으면
관성이 비록 많다 하여도 또한 해가 되지 아니한다.

甲生戌月雖坐火庫若不成局無黨不能爲害。

以辛刃在戌戌中有旺戌生辛 如透庚混雜戌月無氣略有制合亦不爲慮

又云凡用官日干自坐財印終顯如甲子甲辰之類

自坐傷煞終有節病 如甲午甲戌甲申之類須斟酌

갑목 술월생이 비록 화고(火庫)에 앉았으나

만약 국을 이루지 않고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능히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술토(戌土)에 신(辛)의 인(刃)이 있고, 술토 중에 왕한 무토(戊土)가 신금(辛金)을 생함이 있음에,
가령 경금(庚金)이 투출하여 혼잡되어도 술월(戌月)에 무기하므로 대략 제함이 있으니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말하기를 무릇 관성을 쓴다면, 일지가 재성이나 인성이면 종내에는 현달한다.

가령 갑자와 갑진의 무리다. 좌하가 상관, 칠살이면 종내에는 질병이 우뚝함이 있다.

가령 갑오, 갑술, 갑신의 무리이니 반드시 짐작해야 한다.

又曰取官星不必專泥月令支辰

或月干或年日時支干只一處有不曾損傷皆可取用

故經云：明干有氣明干取明干無氣暗中取

若明干無氣引歸地支 或有助托運行得地亦不減月內官星之福

또 말하기를, 관성을 취할 때 오로지 월령만 택하는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혹 월간이나 또는 년일시의 간지에 오직 한 군데만 있고 손상된 적이 없다면 모두 취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 이르기를,

“명간(明干)이 유기하면 명간에서 취하고, 명간이 무기하면 은밀한 곳에서 찾는다.”고 하였다.

만약 명간이 무기하더라도 지지에서 끌어 붙쫓거나 혹 도움에 의존함이 있고,
행운에 득지하면 역시 월내 관성의 복이 줄어들지 아니한다.

又曰凡論官星略見一位食神坐實便能損局惟月令隱祿見食卻爲三奇之貴
大要看官食虛實何如若官星坐實合神略虛隨官助貴；
合神坐實官星漸弱官隨合神謂之貪合忘官.

또 말하기를, 무릇 관성을 논하면, 대략 소개하건대 하나의 관성 아래 든실한 식신이 머무르니 능히
국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며, 오직 월령 속에 숨어있는 정록(正祿)이라면 식신을 보더라도 도리어 삼기
(三奇)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큰 요점은 관과 식의 허실(虛實) 여부를 보는 것이다.
만약 관성이 앉은 곳이 실(實)하면 합신(合神)하여 허(虛)함을 다스리고, 관성을 따라 도우니 귀하다.
합신이 앉은 곳이 실하고, 관성이 점점 쇠약해지면 관성은 합신을 따르게 되며,
탐합망관(貪合忘官)이라 일컫는다.

又曰正官格要行印鄉即是逢官看印 柱中原有印

隨官印輕重日干強弱以觀所以之運 身弱印輕要補其印身旺官輕要補其官

行傷官運即是背祿行身旺運即是逐馬

또 말하기를, 정관격은 운이 인성으로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곧 ‘봉관간인(逢官看印)’이라 한다.

사주 원국 중에 인성이 있으면 관이 따르게 되므로

인성의 가볍고 무거움이 생겨 일간의 강약을 만드니 이것을 행운에서 관찰하는 경우이다.

신약한데 인성도 가벼우면 인성을 돕는 것이 요긴하고,

신왕한데 관성이 가벼우면 관성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상관운으로 행하면 곧 이를 ‘배록(背祿)’이라 하고, 신왕운으로 행하면 곧 이를 ‘축마(逐馬)’라 한다.

珞琖云：背祿逐馬守窮途而悽惶。

行煞運即是煞來混官行墓運即是官星入墓

經云：煞官混雜不貧則夭旺煞投墓壽延難住

所以正官格只喜向祿臨財如此消詳萬無一失

『낙록(珞琖)』에 이르기를, ‘배록축마(背祿逐馬)’는 곤궁하게 된 처지를 지키고 능히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살운(煞運)으로 행하면 곧 이를 ‘살래혼관(煞來混官)’이라 부르고,

묘운(墓運)으로 행하면 곧 이를 ‘관성입묘(官星入墓)’라 한다.

『경(經)』에 이르기를, “살관(煞官)이 혼잡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하고, 왕살(旺煞)이 묘지(墓地)에 던져지면 목숨을 늘이거나, 사는 게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게 된 연유로 정관격은 오직 록(祿)으로 향하되 재에 임해야 좋다.

그래서 이런 소상(消詳)함이 한치의 착오도 없게 하는 것이다.

11장 십신론 II

若以木爲官主品秩清高和俗守愼遇行年太歲在未爲官庫.

以火爲官主官序炎赫爲性猛烈用刑慘酷亦主發歇不常遇行年太歲在戌爲官庫

以水爲官主職卑位下級昇序進謙和得衆矜恤孤寡亦有道性遇行年太歲在辰爲官庫

以土爲官主官序穩當難侵犯厚重質直法令分明遇行年太歲在辰爲官庫

凡五行之官各隨其性則吉若失其性則主爲官不久

만약 목이 관이 되면 당사자는 품계가 청고하고 풍속과 어울려 삼가하여 지키니 행년이나 태세에서 미(未)를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화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벼슬을 안정시켜 아름답게 빛나며, 성질은 맹렬하여 형벌권을 가지고 참혹한 일을 하게 되니,

역시 당사자는 발전이 끊이지 않으며 행년이나 태세에서 술(戌)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수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직책이 낮고 하급직위를 가지는데 등급은 오르고 직위는 나아가니 겸손과 화합함으로 백성의 인망을 얻고, 고아와 과부를 가엾게 여겨 도우며, 또한 도리를 아는 성품이 있으니 행년과 태세에서 진(辰)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토가 관이 되면 당사자는 벼슬이 안정됨이 온당하여 어려움이 침범치 아니하고,

바탕이 곧아서 너그럽고 관대하여 법령이 분명하니 행년이나 태세에서 진(辰)이 있음을 만나면 관고(官庫)가 된다.

무릇 오행의 관은 각자의 성질을 따르는 것이 길하며 만약 그 성질을 잃어버리면 곧 당사자는 벼슬이 오래지 아니하게 된다.

萬祺賦》云：官星榮者榮身之主掌祿之源

逢財則從容顯達遇刃則偃蹇伶仃 喜印綬以爲順意忌偏黨以爲傷神

所以功名特達者身強官旺 利祿虧盈者身弱官衰身旺官微財名寡合

傷官若重再喜印滋身輕忌曜如強偏愛印綬生制

『만기부(萬祺賦)』에 이르기를, “관성이 영화로우면 영신을 좌우하는 주인이 녹(祿)의 근원을 장악한 것이다. 재성을 만난 즉 조용히 현달하지만 양인(陽刃)을 만난 즉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을 떨다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인수의 순의(順意)를 기뻐하고 편당(偏黨)으로 인해 상신(傷身)하는 것을 꺼린다.

공명이 특달한 까닭은 신강하고 관성이 왕한 때문이며, 이록(利祿)이 모자라거나 가득한 것은 신약하고 관성이 쇠한 때문이니, 신왕하고 관성이 미약한 것은 재명(財名)이 약한 것을 만난 것이며, 상관이 만약 중하면 다시 인성의 많음을 기뻐하고 일주가 가벼우면 당연히 강한 오행을 꺼리며, 인수가 생조하고 제어함을 편애한다.”라고 하였다.

11강 십신론 II

又印多官多爲貴命官旺身衰反爲病，官多身旺化爲財財旺身衰貧病併
又：正官大抵要純和四柱無傷掇顯科 時上喜逢財健旺柱中欣見印生多
提綱獨遇爲真貴年位重逢乃太多 別處若有煞來混反爲辛苦受奔波
合諸說觀正官喜忌見矣.

또, “인수도 많고 관성도 많으면 귀명이 되고 관왕한테 신쇠하면 반대로 병이 되며,
관성이 많은데 신왕하면 재물로 화(化)하고, 재성이 왕한테 신쇠)하면 가난과 질병이 나란히 온다.”고 하였다.

또, “정관은 대체로 순화(純和)해야 하는데 사주에 상(傷)함이 없다면 등과하여 현달하고,
시상(時上)에서 재성의 건왕함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중에서 인성의 생(生)함이 많음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제강이 홀로 진귀함을 만나는데 년위(年位)에 거듭 만나면 또한 태다(太多)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 만약 칠살이 와서 혼잡함이 있게 된다면 반대로 신고(辛苦)하고 분파(奔波)를 받는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의 학설을 종합하여 정관을 관찰하면 희기가 드러나리라.